

일. 환란 중에 기도함:

❖ 엘리야: 환란을 맞아 기도함

-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 (1)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왕상 18:36-38).
 - (2)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일곱번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작은 구름 하나를 보내셨고, 그 구름은 강력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왕상 18:42-45).
 - (3) 그가 지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대신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왕상 19:4-8).
 - (4) 동굴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숨어 있던 엘리야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왕상 19:9-18).
- 그의 첫 기도는 기적적으로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두번째 기도는 엘리야가 일곱번이나 간구한 후에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번째 기도에 40 일이 지나서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언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 한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 여기서 한나가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9 개월간 기쁨의 임신기간 후에 말입니다(삼상 1:9-20).
- 하지만 1 장 전체를 읽어보면 한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을 알게됩니다(삼상 1:1-8).
-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고, 브닌나는 이미 여러명의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신 한나를 매년 괴롭혔습니다.
- 도대체 한나는 몇 년 동안 아기를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나의 이기심(약 4:3), 마음에 품은 죄(시 66:18), 믿음의 부족(약 1:6)이거나, 아니면 아직 적절한 때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모든 상황들까지 알고 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렘 29:11).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 그분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시는 때에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요일 5:14-15).

이. 기도의 본보기:

❖ 예수님: 기도의 내용

-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칭찬 받기 위해 길고 거창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마 6:5-8).
- 기도는 진실하고 간결하며, 일상적인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 다니엘: 기도의 구조

- 다니엘서 9 장 4 절에서 19 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네가지 근본적인 구조들을 잘 보여줍니다
 - (1) 찬양(단. 9:4)
 - (2) 자백과 용서 구함(단. 9:5-15)
 - (3) 간구(단. 9:16-19)
 - (4) 감사드림(빌. 4:6)
-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 다니엘의 기도양식은 우리의 개인 기도와 대중 앞에서 드리는 기도 모두에 적용됩니다. 물론, '고백과 용서'에 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 그의 기도양식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며, 기도가 하늘 선물들을 퍼 담는 장 바구니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삼. 기도에 대한 네가지 질문들

❖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하나?

-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며,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롬 8:26).

❖ 나의 현재 상황이 괜찮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 죄 짓지 않은 천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기도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 누구와 기도해야 할까요?

- 상황에 따라: 혼자 드리는 은밀한 기도야 말로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가족이나 작은 모임에서; 교회에서.

❖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나?

- 가장 분명하고 안전한 방법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거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경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